

2011.05.02 미래정책연구실

□ 중국, 식품안전성 문제 심각

1. The Wall Street Journal(2011.04.25) 주요 내용

- 중국은 200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‘멜라민 분유’ 파동에 이어 가족조각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첨가한 ‘피혁 우유’, 쇠고기 맛과 향이 나는 화학물질을 돼지고기에 바른 ‘가짜 쇠고기’, 암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‘발암 콩나물’ 등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불량식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.
 - 중국은 2008년 ‘멜라민 분유’ 파동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됨.
- 멜라민 색소 외에도 잉크, 염색제, 표백제, 왁스 등이 식품에서 발견되고 있어 정부는 유해 불량식품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중국 내 식품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공포는 가라앉지 않고 있음.
- 베이징에 위치한 미국 로펌 윌머헤일(WilmerHale) 소속 변호사인 레스터 로스(Lester Ross)와 베이징 대학교 공공보건학부 우 밉(Wu Ming)교수는 중국 식품 안전성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.

<문제점>

- “식품 안전성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회생을 치르더라도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심리가 유해 불량식품 제조를 부추긴다”고 지적함.
 - “일부 회사들은 첨가제를 사용하면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윤을 늘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할 뿐 첨가제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”고 주장함.
- 또 다른 문제로 식품 안전성을 다루는 정부기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함.
 - 중국 보건성이 식품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이지만, 국가

공상행정관리총국,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농림성도 연관되어 있음.

- 중국의 방대한 식품산업 관련 업체 수도 식품 안전성 규제의 강력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.

<대책>

-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‘대대적인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’을 제시함.
 - 중국 정부는 식품 속에 화학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광고와 메시지를 지하철, 버스 정류장, TV 전광판을 통해 중국 내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음.
 - 또한 중국 현지 언론이 나서 화학물질을 섭취할 경우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도하는 것도 도움이 됨.
- 중국 보건성은 식품 안전성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합법적인 식품 첨가물 목록을 개정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며, 불법 첨가물 목록을 발표할 예정임.

□ 식품가격 급등으로 식품회사의 가치 증가

1. The Wall Street Journal(2011.04.26) 주요 내용

- 아시아 지역의 식품소비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,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으로 식품가격이 급등하여 식품회사에 대한 인수 시도와 기업공개(IPOs: Initial Public Offerings)가 늘어나고 있음.
 - 모건 스탠리(Morgan Stanley)의 소비재 투자은행(IB) 부문 러스 콜라코(Russ Colaco) 이사는 “식품가격이 증가하면서 식품회사들 사이에서 더 큰 규모의 인수 시도와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활기를 띠고 있다”고 주장함.
- 맥쿼리 캐피탈(Macquarie Capital)의 주식 캐피탈마켓 대표인 마크 워버튼(Mark Warburton)은 “지난 몇 년동안 농산물에 대한 투자는 더 매력적으로 변화하였고, 거래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”고 주장함.

- 식품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식품회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음.
 - 시장조사기관인 캐피탈IQ에 의하면,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**아시아-태평양지역 농업관련 사업의 가치평가는 19% 증가함.**
 -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35개 농업회사의 주가가 매출액 대비 4.48배에 거래되는 것에 비해 지난 1년간 주식시장에 상장된 9개의 아시아 농업회사는 주가가 매출액 대비 6.01배로 거래됨.
- 오리고 파트너스(Origo Partners)의 CEO인 크리스 리닝(Chris Rynning)은 “지난 1년 동안 상장된 9개의 아시아 농업회사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”며 “이는 1년간 식품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이다”라고 주장함.
 - 이제까지 청정기술과 자연자원에만 투자한 사모펀드 오리고 파트너스(Origo Partners)는 지난 3월 초 쌀생산업체인 ‘China Rice’의 지분 21%를 1,300만 달러에 구입함.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